

‘순천의 촛불’은 세월호 이후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

신선식·박현자씨 부부
매일 연향동서 촛불 집회
정치·사회 국민 관심 확산
‘징검다리’ 역할 하고 싶어
박근혜 퇴진 후에도 계속할 것

5일 오후 6시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광장, 신선식(56·순천여중 교사)씨 등 4명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펼쳤다. ‘작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 현수막 앞에 놓인 작은 스피커에서는 ‘하야가’, ‘이게 나라냐’ 등 음악이 흘러나왔다.

인군을 지나던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를 외치며 응원 메시지를 건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8월께 타오르기 시작한 ‘순천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올 여름 몇 개월 동안 1주일에 1차례 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2년 넘게 매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집회로 시작된 촛불은, 백남기 농민 국가살인 규탄 집회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로 열리고 있다. 매일 적게는 2~3명, 많을 때는 20~30명, 규모가 커졌을 때는 200명까지 참가자가 늘어나기도 한다.

순천에서 매일 열리는 작은 촛불집회는



5일 오후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광장에서 시민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작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신선식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매일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신씨와 그의 아내 박현자(여·52)씨가 이끌고 있다. 이들 부부가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한 이유는 정치·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요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신씨는 “광우병 때도, 세월호 때도 그랬다. 대규모로 불타 올랐던 촛불이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느 순간 사그라지는 것을 보면 아쉬웠다”며 “점과 같은 ‘작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들고 있

으면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만들어지듯이 언젠가는 다시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고는 바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따금 제자들이 현장에 들러 “선생님 소식 항상 보고 있어요. 힘내세요”라는 응원과 함께 촛불을 들면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신씨는 “박근혜가 퇴진한 뒤에도 제2, 3의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

향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병역기록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 관련법을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미군 기지에서 연수 중인 간호장교 조 모 대위와 관련, “지난주 조 대위와 함께 있으면서 밀착 동행했던 한국 남자 장교의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한국 장교가 조 대위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며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합뉴스

“정유라 남편 신모씨 병역 기피 의혹”

민주당 안민석 의원 “공익 배정 뒤 독일서 신혼생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모씨에 대해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 몰라도 병적 관련 의혹이 있다”며 병역이행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국정조사 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청와대 등에 대한 국조 2차 기관보

고에서 신씨의 전체 이름을 공개하며 병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신씨가 지금도 공익요원 신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국회에서 정식 요청이 와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현재 해당자의 이름만 거론됐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포

정유라 고교졸업도 취소

청담고 수업일수 미달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고교에서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 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한미대사관 “촛불집회 때 ‘1분 소등’ 안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광화문에서 지난 3일 열린 제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대사관 측이 ‘1분 소등’에 동참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사관 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계속 켜져 있었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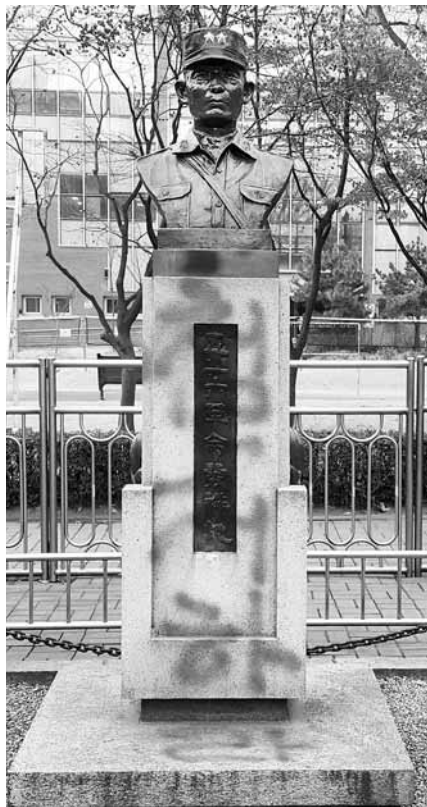
‘1분 소등’ 퍼포먼스 당시 사무실 불이 꺼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동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대사관이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박 대통령의 퇴진

을 요구하는 소등 행사에 참여했다면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영상에서는 ‘1분 소등’ 행사 중에도 대사관 꼭대기층의 바로 아래층 사무실 불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은 주변 건물의 불빛이 켜져 있다가 꺼지면서 생긴 착시현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서울 박정희 흉상 훼손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 쌀 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WTO 상한선 육박…전남 벼 재배면적 1600ha 줄이기로

내년 쌀 변동직불금 규모가 1조49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지급액보다 2배 많은 수준인 데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한도도 짝 채웠다.

당초 정부는 쌀값이 80kg당 14만 원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안으로 9777억 원을 잡았지만,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5123억 원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12만8496원이다. 21년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 원대가 붕괴한 상태다.

만약 현재 가격이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면 1조4900억 원으로도 변동직불금은 11억 원가량 모자라게 된다. 현행법상 직불금 지급 총액은 WTO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내년도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77만9000ha에서 74만4000ha로 3만5000ha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벼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1600ha 줄이기로 했다. 전남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13년 17만690ha, 2014년 16만9585ha, 2015년 17만185ha로 17만ha를 오갔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자연감소분, 농식품부의 쌀수급 균형 달성 등으로 인해 15만ha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공급대를 형성하기 위해 6~7월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 쌀 적정생산’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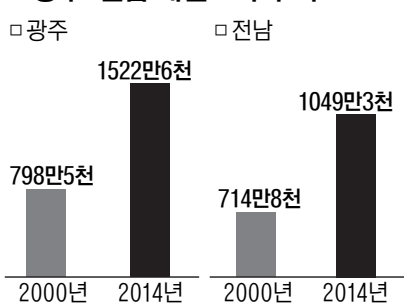
워크숍에서는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3만5천ha 줄이기 위해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농산사책 평가, 정부 포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d@연합뉴스

광주 1인당 소득 14년새 두배

2014년 1522만6000원
증가율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은 1049만3000원

■ 광주·전남 개인소득 추이



광주시민 1인당 개인소득이 지난 14년 사이 두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율은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로 하위권이었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시민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2000년 798만5000원에서 2014년 1522만6천원으로 90.7%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91.8%)과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로 낮은 것이다.

대전이 102.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90.4%로 가장 낮았다. 부산 101.2%, 인천 100.6%, 울산 100.3%, 대구 93.2%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전남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 714만8000원에서 2014년 1천49만3000원으로 97.2% 증가했다.

광주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 955만8000원에서 2014년 264만3천원으로 116.0% 증가했다. 전남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 1506만6000

원에서 2014년 3552만원으로 136% 늘었다.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116.0%를 감안하면 광주는 하위권, 전남은 상위권에 속한다.

광주공향 이용객 수는 2000년 238만2000명에서 2010년 134만9000명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160만5000명으로 다소 늘었다.

광주 송정역 승하차 수는 2010년 97만9000명에서 2015년 216만1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광주 송정역 승하차 수의 대폭 증가는 KTX 개통 효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풍나무뿌리 감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9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